[Volume No.478]

# STL MARKET REPORT

# Weekly Focus No.478

## November 14, 2023

The STL Market Report covers major issues affecting the world S&P market and provides an outlook for the market developments. The report provides a detailed analysis of key developments impacting S&P market trends.

Contents


| | |
|---|---|
| News | 1 |
| Bulk Carrier | 8 |
| Tankers | 12 |
| + Container Sales Report | |
| Demolition | 17 |
| Key Indicators | 20 |
| Issue & Trend | 22 |
| Contact Details | 23 |


** 본 자료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내, 외신 자료와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법적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Ⅰ. NEWS

## 1. '잭팟서 감원으로'...해운업계, 수요감소 속 공급과잉에 '신음'

지난 2 년간 기록적인 호황을 누린 글로벌 해운업계가 이제는 감원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12 일(현지시간) 세계 해운업계가 수요 감소와 공급 과잉에 직면해 팬데믹 이전 시절로 돌아가고 있으며, 2~3 년의 경기 하강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세계 주요 해운업체들은 2021 년과 2022 년 2 년간에 엄청난 수익을 달성했다.

컨테이너 운송 및 해상무역 분야의 국제적 전문가인 존 맥카운(JOHN MCCOWN)의 집계로, 2021 년과 2022 년에 총 3 천 640 억 달러(481 조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그에 앞서 약 10 년간 수익이 거의 없었던 것과는 극명한 대조다.

하지만 운임이 비용 이하로 추락하면서 이번 분기에 다시 적자로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 데다 가까운 미래에도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글로벌 경제에 관여하고 있는 기존 산업계에서 올해 해운업처럼 역사적인 수익을 기록했다가 다시 손익분기점 이하로 요동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독일 선사인 하팍로이드(HAPAG-LLOYD AG)의 최고경영자(CEO)인 롤프 하벤 얀센은 인터뷰에서 "향후 24~36 개월이 걱정된다"며 "우리는 경기 하강(DOWNTURN)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대 해운사인 A.P.묄러-머스크는 잉여 현금 흐름이 지난해 약 270 억 달러(36 조원)에서, 올해 약 80% 감소할 수 있고 내년에는 마이너스로 전환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보고서에서 전했다.

지난 10 일간 주요 해운사들인 머스크, 하팍로이드, 프랑스 CMA CGM 은 최소 내년까지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돼 경비를 절감할 것이라고 잇따라 밝혔다.

머스크는 이미 이달 초 1 만 명을 감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일부에서는 업계가 가격 전쟁을 피하자고 촉구하기도 했다.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 수년 동안 업계는 가격 경쟁으로 잇단 통합과 함께 최소 한 건의 주요 업체 파산을 겪었다.

# Ⅰ. NEWS

세계 3 대 선사인 CMA CGM 의 최고재무책임자(CFO) 라몬 페르난데스는 지난 10 일 기자들에게 "가격 전쟁은 결국 시작한 쪽만 아니라 모두에 해를 끼친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사정의 원인은 공급 과잉이 주로 꼽히고 있다. 컨테이너선은 더 새롭고 더 큰 선박의 형태로 공급이 증가하는 반면, 상품 수요는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해운업체들은 이미 초비상이다. 내년에 아시아에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데 드는 비용이 15% 더 늘어나는 것은 물론, 탈탄소화를 위해 향후 수십 년 동안 1 조 달러(1 천 322 조원)를 투자해야 할 처지다.

업체들로서는 단기적으로는 일부 항로 운항을 축소하거나 수요가 적은 항로에서는 아예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침체가 장기화하면 용선 계약을 종료시키거나 놀리는 선박을 늘리고, 또한 낡은 선박을 고철 시장에 판매할 수도 있다.

해운업계와 달리 제조업체나 소매업체들은 운송 비용 절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는 또한 인플레이션과 싸움을 하는 세계 중앙은행들에도 도움이 된다.

## 2. 11 월 외환시장은 '급경사'... 안전장치 충분할까

11 월의 시작부터 외환시장이 크게 요동쳤다. 11 월 1 일부터 6 일까지 원/달러 환율이 장중 60 원 이상 폭락하고, 그 이후 반등하면서다. 환율이 깎아지르는 듯 가파르게 오르내리며 위태로울 정도의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내년 외환시장 개편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1300 원대 중반부에 머무르면서 1363.5 원으로 연고점을 경신할 만큼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11 월이 되자마자 큰 폭의 급락세를 보였다. 11 월 1 일 달러당 장중 1358.7 원까지 올라갔던 환율은 이튿날 1340 원대로 떨어졌고, 그 다음날 저가는 1317.4 원으로 올 하반기 들어 최저 수준을 보였다.

다음 영업일인 6 일에는 1297.2 원까지 내려가며 석 달 만에 달러당 1200 원대로 주저앉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2 일과 3 일, 6 일에 걸쳐 3 영업일 동안 환율이 달러당 60 원 가까이 폭락한 셈이다. 다만 11 월 7 일 들어서는 한국 증시가 다시 약세를 보이고 미 국채 금리가 다시 오르면서 10 원 이상 반등해 달러당 1307.9 원에 마감됐다. 이후 한동안 강보합세를 보였다.

# Ⅰ. NEWS

11 월 들어 이뤄진 원/달러 급락 요인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꼽힌다. 첫째는 미국 금융긴축 중단에 대한 기대감이며, 둘째는 미국의 경제지표가 고용시장 둔화와 10 년물 국채 금리 상승으로 악화한 것, 셋째는 국내 증시의 공매도 금지 시행으로 인한 상승세가 원화 상승 압력을 키운 것이다.

지난 11 월 2 일 종료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 2 회 연속 정책금리 동결(5.25~5.5%)이 확정됐다. 시장이 이를 비둘기파적 동결로 해석하면서, 회의 직후 페드워치에서 내년 6 월 25BP 기준금리 인하 전망은 45.05%로 이전 주의 35.57%에서 10%P 가량 올랐다.

국제금융센터는 이에 대해 "7 월 FOMC 이후 나타난 장기금리 상승 등에 따른 금융상황 긴축 효과로 인해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필요성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평가했으며 "최근 수개월 간 인플레이션율 하락 추세와 노동시장 완화, 장기금리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추가 금리인상은 부재할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라고 지적했다.

미국 국채 금리 10 년물은 10 월 하순 들어 5% 선을 돌파했다. 이는 16 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미국 고용지표는 10 월 중 비농업 부문 고용이 15 만 명 증가해 전월 대비 둔화했고, 실업률은 3.9%로 소폭 상승했다. 장기금리와 고용지표가 모두 경기 둔화 가능성에 무게를 실으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동력이 크게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달러인덱스는 올해 원/달러가 연고점을 기록한 10 월 4 일 107 선을 웃돌며 함께 연고점을 경신했으나 이후 하락했다. 반면 11 월 6 일 한국 증권시장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되며 외국인 자금이 몰려들고 환율이 하락했다. 다만 이튿날 증시가 다시 내리고 외국인 자금이 빠지면서 환율은 다시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큰 변화 앞둔 외환시장, 변동성 대응 괜찮나 = 최근 우리나라의 환율 변동성은 여타 국가 대비 높아지는 추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4 월 기준 우리나라의 환율 변동성은 0.7%P 로, 동기간 34 개국(선진국 10 개국, 신흥국 24 개국) 전체 평균 0.6%P, 선진국 0.65%P, 신흥국 0.58%P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 외환시장이 내년 큰 변화를 앞둔 상황에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기재부는 내년 외환시장의 대대적인 개편과 참여자 및 개방시간 확대를 예고한 바 있다. 그리고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2003 년 이래 21 년 만에 발행할 계획이다.

# Ⅰ. NEWS

기획재정부는 새로운 외환거래 시스템을 내년 1 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7 월부터 정식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시장 참여를 국내 금융기관에만 허용해왔으나 투기거래 가능성이 적고 위험관리가 엄격한 글로벌 은행·증권사에 한해 해외 소재 금융기관에도 개방하고, 거래시간도 국내 증시 개장시간으로 제한해왔던 것을 런던 금융시장 마감 시간인 한국 기준 오전 2 시까지 개장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7 일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외환건전성협의회에서는 외환시장 구조 개선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및 보완 조치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내년 하반기 정식 시행 시까지 시장의 요청을 수시로 폭넓게 듣고 신속히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기재부는 시장자율기구로서 행동규범 자율준수 위원회를 신설해 시장교란 등 부당행위 개념을 정립하고, 예방 및 감시 강화 활동을 해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환시장 구조 개선으로 인해 시장안정성과 대외건전성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투기 목적 헤지펀드 등 기관의 시장 참여는 불허하고 외국 금융기관(RFI)의 은행 간 시장 거래는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경유하도록 의무화해 당국의 시장 모니터링 및 관리기능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해나간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제 1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외환당국은 국내외 시장참여자의 거래 편의보다는 안정적인 시장 관리에 중점을 두어 외환시장을 운영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대외거래 규모에 비해 외환시장 규모가 작고 거래시간도 제약되다 보니,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이 기형적으로 성장하고 이를 통해 유입된 투기거래 수요가 시장을 흔드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율이 결정되는 은행 간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시장자율규범을 확립하고, 선도은행 선정기준을 개편해 새로운 시장 구조 하에서의 거래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국내외 기업, 글로벌 투자자 등 최종적인 외환 수요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제 3 자 외환거래, 외국인의 환헤지 등과 관련한 제도·관행도 차질없이 고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라 기재부는 지난 9 월 2023 년 국세수입이 59 조 1000 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며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의 여유 재원을 20 조 원 내외로 활용하고 2023~2024 년 2 년간 외평기금의 공자기금 예수금을 조기상환 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다.

## Ⅰ. NEWS

이를 위해 내년 외평기금 여유자금 운용 규모는 101 조 6728 억 3800 만 원으로 전년 대비 큰 폭 증액할 예정인데, 공자기금 예수 외에 외평기금의 자체적인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통해서도 원화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최대 약 18 조 원 한도로 만기 1~2 년짜리를 발행할 예정이다.

외평기금은 환율의 변동성 완화 및 외화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국환거래법 제 13 조 제 1 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다. 환율이 급락하면 보유 원화를 매도하고 달러를 매입해 환율을 상승 안정시키고, 환율이 급등하면 보유 달러를 매도하고 원화를 매입해 환율을 하락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외평기금이 공자기금으로부터 예수한 금액을 조기상환할 경우 외평기금이 보유한 원화재원이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며 "외평기금은 공자기금 예수 등을 통해 확보한 원화재원과 외화표시 외평채의 발행을 통해 확보한 외화재원을 통해 환율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공자기금 예수원금 조기상환에 따른 원화재원의 감소가 해당 기능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2023 년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외평기금의 여유 재원 20 조 원 내외를 활용할 계획이며, 이는 외평기금의 원화재원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의 환율 변동성이 타 국가 대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원화재원의 단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세수결손 대응을 위해 외평기금 원화재원을 감소시키는 것은 외환시장 참가자들에게 외환당국의 외환시장 개입 기조·역량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외환시장 참가자들의 매매행태가 변화하여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하나증권리서치센터 등 민간 부문에서도 정부가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외평기금 등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한다는 발표에 대해 MMF 의 환매 등으로 인한 단기금융시장의 금리 인상, 변동성 확대, 유동성 위축 등을 우려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획재정부가 2023~2024 년 2 년간 조정하려는 외평기금의 원화재원은 과거 3 년 대비 4~5 배에 달하는 40 조 원대로, 단기간 내에 원화재원을 대규모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 Ⅰ. NEWS

## 3. 뜨거운 지구...올해 인류 역사 상 가장 뜨거웠다

유럽연합(EU)의 기후변화 감시기구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는 지난 6 월 초 지구 표면의 대기 온도가 사상 처음으로 산업화 이전보다 1.5 도 올랐다고 발표한 바 있다. 1.5 도는 2015 년 파리기후협정을 통해 국제사회가 설정한 지구 온도 상승의 상한선이자 기후변화 최후의 방어선이다. 지구 온난화를 넘어선 지구 열대화의 가속화다.

지구 기후 위기를 향한 경고는 현재 진행형이다. 국제기상기구(WMO)는 최근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 발표를 인용해 올해 10 월을 역대 가장 따뜻했던 10 월로 명명했다. 지난 10 월은 지난 1991~2020 년 평균보다 0.85 도 높았고, 이전 가장 따뜻했던 10 월보다 0.40 도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1 월부터 10 월 현재까지 10 개월 간 지구 평균기온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1850~1900 년 산업화 이전 평균보다 1.43 도 높고, 2016 년 10 개월 평균보다 0.10 도 높은 수준이다.

WMO 는 2023 년이 역사상 가장 따뜻한 해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북극 해빙과 해수면 온도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10 월 평균 해수면 온도(60°S~60°N 범위)는 20.79 도로 10 월 기록 중 가장 높았으며, 남극 해빙 면적은 6 개월 연속으로 연중 최저 수준을 유지하며 월간 수치로는 평균보다 11%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북극 해빙 면적은 10 월 평균보다 12% 낮아 7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기후 온난화의 가속화에 따라 강수량도 크게 증가했다. 특히 지난 10 월 유럽 대부분 지역에서 강수량이 평균보다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폭풍 바베트는 북부 유럽을 강타했으며, 폭풍 알라인은 포르투갈과 스페인에 영향을 미쳐 폭우와 홍수를 불러온 바 있다.

올해 이외 역대 가장 따뜻했던 해는 2016 년으로 유난히 강한 엘니뇨와 기후변화로 인한 '이중고난'이 발생했던 때로 알려졌다. 적도 부근의 수온이 올라가는 해수 온난화 현상을 일컫는 엘니뇨는 폭염, 홍수, 가뭄과 같은 극단적인 날씨와 기후 현상을 악화시킬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엘니뇨 현상은 적어도 내년 4 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날씨 패턴에 영향을 미치고 육지와 해양 모두의 기온이 더욱 급등할 것으로 예상됐다.

# Ⅰ. NEWS

엘니뇨는 지난 7~8 월에 빠르게 발달해 9 월에 중간 정도의 강도에 도달했으며, 내년 11 월부터 이듬해 1 월에 강력한 현상으로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해 남극 오존 구멍은 지난 9 월 21 일 최대 크기인 1000 만 평방마일(약 2600 만㎢)에 도달했다. 미국해양대기청(NOAA)과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실시한 연간 위성 및 풍선 기반 측정에 따르면 이러한 오존 구멍은 1979 년 이후 12 번째로 큰 규모다. 오존층 파괴가 최고조에 달했던 9 월 7 일부터 10 월 13 일까지 올해 오존 구멍의 평균 면적은 2310 만㎢로 북미 대륙 크기(약 2471 만㎢)와 맞먹는다.

오존층은 지구의 천연 자외선 차단제 역할을 한다. 성층권의 이 부분은 태양의 유해한 자외선(UV) 복사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기 때문이다. 오존층이 얇아지면 자외선으로부터의 보호가 줄어들어 일광화상, 백내장, 피부암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매년 9 월이면 오존층이 얇아져 남극 대륙 위에 '오존 구멍'이 형성된다.

한편 WMO 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구기후 잠정보고서를 유엔 기후변화회의인 COP28 개막일인 오는 30 일 발표할 예정이다. 기후변화의 원인, 즉 인간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농도에 관한 연례보고서는 오는 15 일 발표를 앞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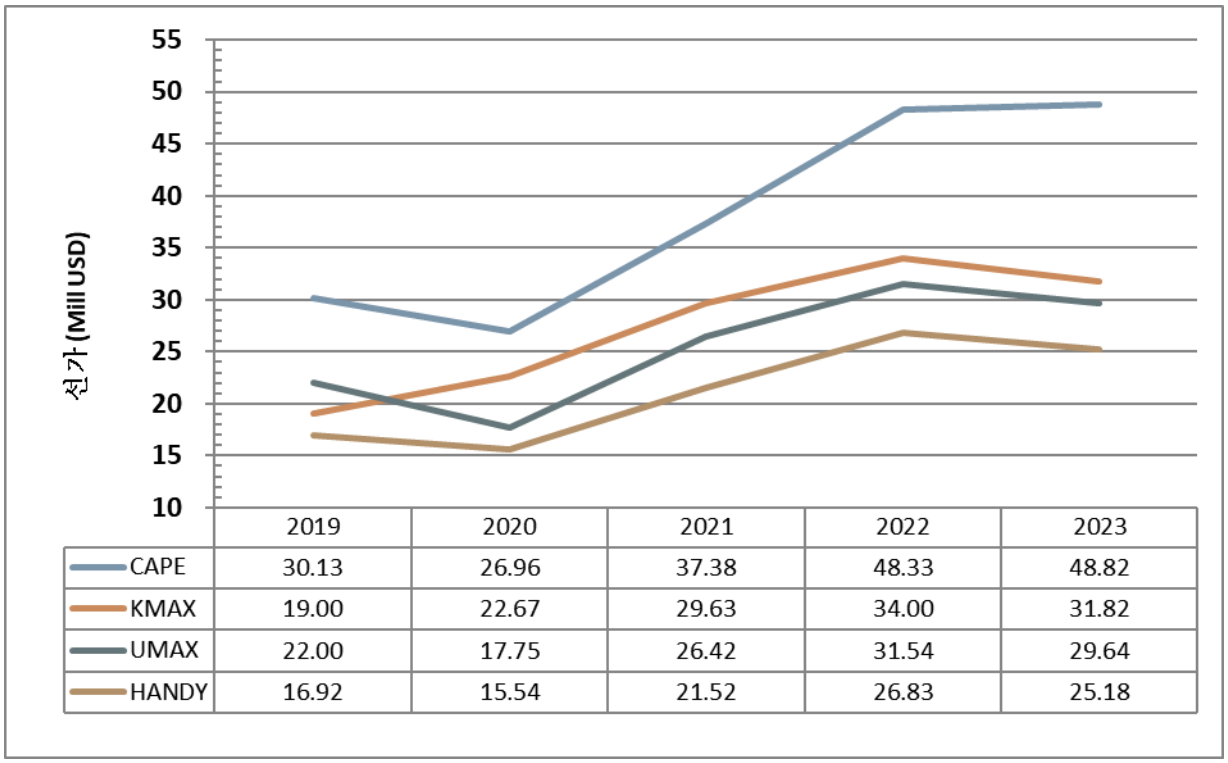
# Ⅱ. BULK CARRI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률 : 전년도 대비, %)

| 연평균 선가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Capesize 180K<br>*Eco-design based since 2021 | 30.13 | 26.96 | 37.38 | 48.33 | 48.82 |
| | -14.34% | -10.51% | 38.64% | -- | 1.00% |
| Kamsarmax 82K<br>*76k before 2020 | 19.00 | 22.67 | 29.63 | 34.00 | 31.82 |
| | 0.42% | 19.30% | 30.70% | 14.75% | -6.42% |
| Ultramax 60-61K | 22.00 | 17.75 | 26.42 | 31.54 | 29.64 |
| | -- | -19.32% | 48.83% | 19.40% | -6.04% |
| SMAX 58K<br>*Data available before 2021 | 17.17 | 15.92 | -- | -- | -- |
| | -4.20% | -7.28% | -- | -- | -- |
| Handysize 37K | 16.92 | 15.54 | 21.52 | 26.83 | 25.18 |
| | 12.18% | -8.13% | 38.47% | 24.69% | -6.15% |

## ❒ BC 연평균 선가

❖선령 5 년 기준, Million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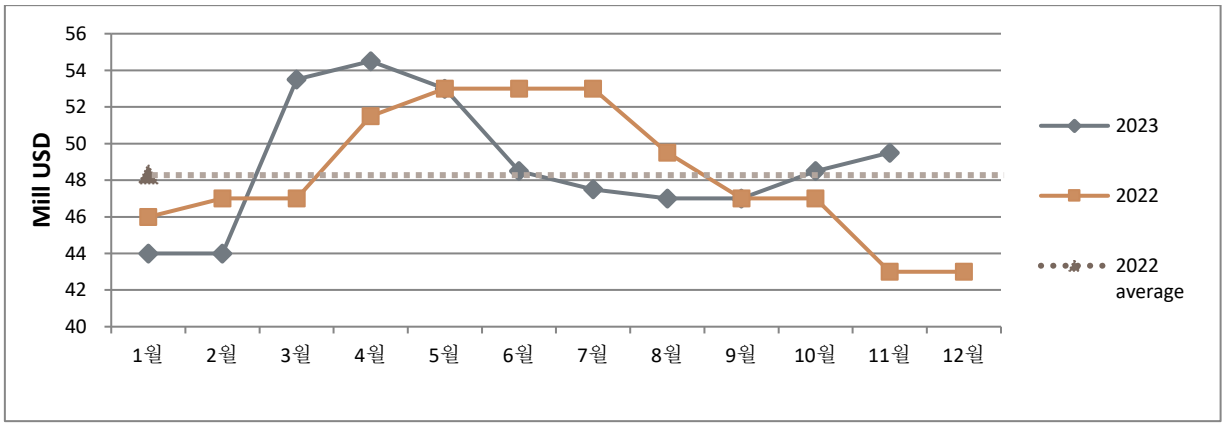


# II. BULK CARRIER

| 2023 | | 1 월 | 2 월 | 3 월 | 4 월 | 5 월 | 6 월 | 7 월 | 8 월 | 9 월 | 10 월 | 11 월 | 평균 |
|---|---|---|---|---|---|---|---|---|---|---|---|---|---|
| CAPE (180K, Eco.) | 선가 | 44.00 | 44.00 | 53.50 | 54.50 | 53.00 | 48.50 | 47.50 | 47.00 | 47.00 | 48.50 | 49.50 | 48.82 |
| | 전월대비 | 2.3% | 0.0% | 21.6% | 1.9% | -2.8% | -8.5% | -2.1% | -1.1% | 0.0% | 3.2% | 2.1% | -- |
| | 전년대비 | -4.3% | -6.4% | 13.8% | 5.8% | 0.0% | -8.5% | -10.4% | -5.1% | 0.0% | 3.2% | 15.1% | 1.0% |
| KMAX (82K) | 선가 | 30.00 | 30.00 | 32.50 | 34.00 | 33.00 | 31.50 | 31.50 | 31.50 | 32.00 | 32.00 | 32.00 | 31.82 |
| | 전월대비 | 0.0% | 0.0% | 8.3% | 4.6% | -2.9% | -4.5% | 0.0% | 0.0% | 1.6% | 0.0% | 0.0% | -- |
| | 전년대비 | -11.8% | -13.0% | -8.5% | -6.8% | -13.2% | -17.1% | -12.5% | -4.5% | 3.2% | 3.2% | 4.9% | -6.4% |
| UMAX (60-61K) | 선가 | 28.50 | 28.50 | 31.50 | 32.00 | 31.00 | 29.50 | 29.50 | 28.00 | 28.50 | 29.50 | 29.50 | 29.64 |
| | 전월대비 | 1.8% | 0.0% | 10.5% | 1.6% | -3.1% | -4.8% | 0.0% | -5.1% | 1.8% | 3.5% | 0.0% | -- |
| | 전년대비 | -6.6% | -12.3% | -4.5% | -5.9% | -8.8% | -14.5% | -10.6% | -11.1% | -5.0% | -1.7% | 7.3% | -6.0% |
| HANDY (37K) | 선가 | 24.50 | 24.50 | 26.00 | 26.50 | 26.00 | 25.00 | 24.50 | 24.00 | 25.00 | 25.50 | 25.50 | 25.18 |
| | 전월대비 | 4.3% | 0.0% | 6.1% | 1.9% | -1.9% | -3.8% | -2.0% | -2.0% | 4.2% | 2.0% | 0.0% | -- |
| | 전년대비 | -10.9% | -12.5% | -7.1% | -7.0% | -8.8% | -12.3% | -14.0% | -11.1% | -3.8% | 4.1% | 8.5% | -6.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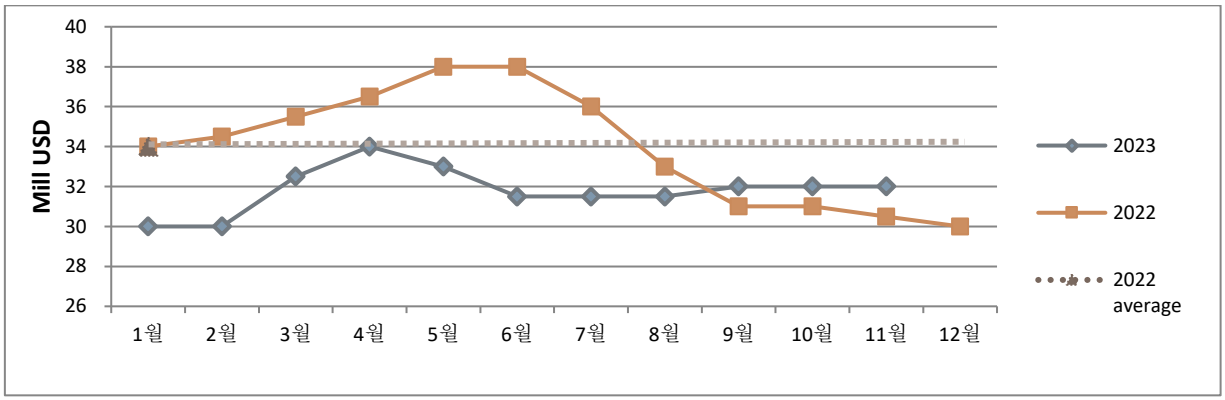
| 2022 | 1 월 | 2 월 | 3 월 | 4 월 | 5 월 | 6 월 | 7 월 | 8 월 | 9 월 | 10 월 | 11 월 | 평균 |
|---|---|---|---|---|---|---|---|---|---|---|---|---|
| CAPE (180K, Eco.) | 46.00 | 47.00 | 47.00 | 51.50 | 53.00 | 53.00 | 53.00 | 49.50 | 47.00 | 47.00 | 43.00 | 48.33 |
| KMAX (82K) | 34.00 | 34.50 | 35.50 | 36.50 | 38.00 | 38.00 | 36.00 | 33.00 | 31.00 | 31.00 | 30.50 | 34.00 |
| SMAX (58K) | 30.50 | 32.50 | 33.00 | 34.00 | 34.00 | 34.50 | 33.00 | 31.50 | 30.00 | 30.00 | 27.50 | 31.54 |
| HANDY (37K) | 27.50 | 28.00 | 28.00 | 28.50 | 28.50 | 28.50 | 28.50 | 27.00 | 26.00 | 24.50 | 23.50 | 26.83 |

## ◻ 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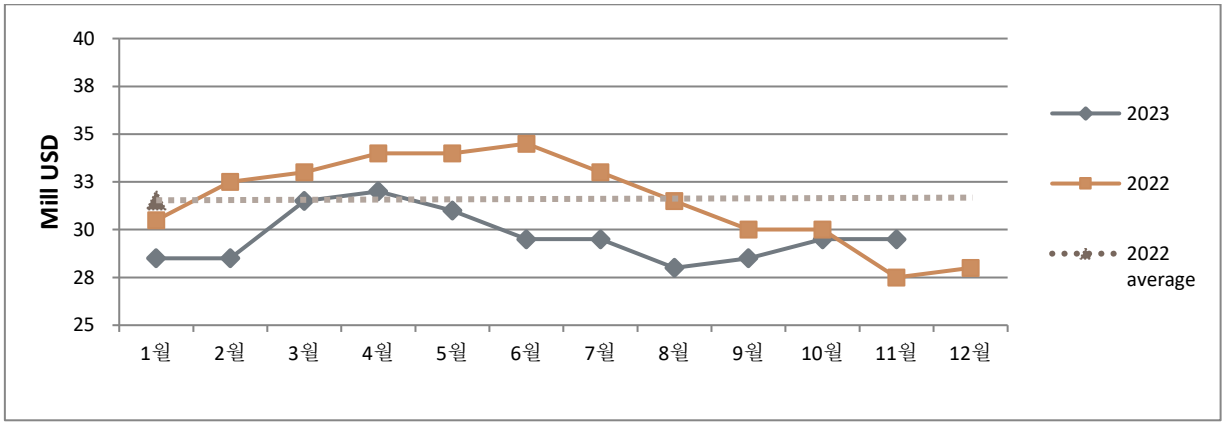


# Ⅱ. BULK CARR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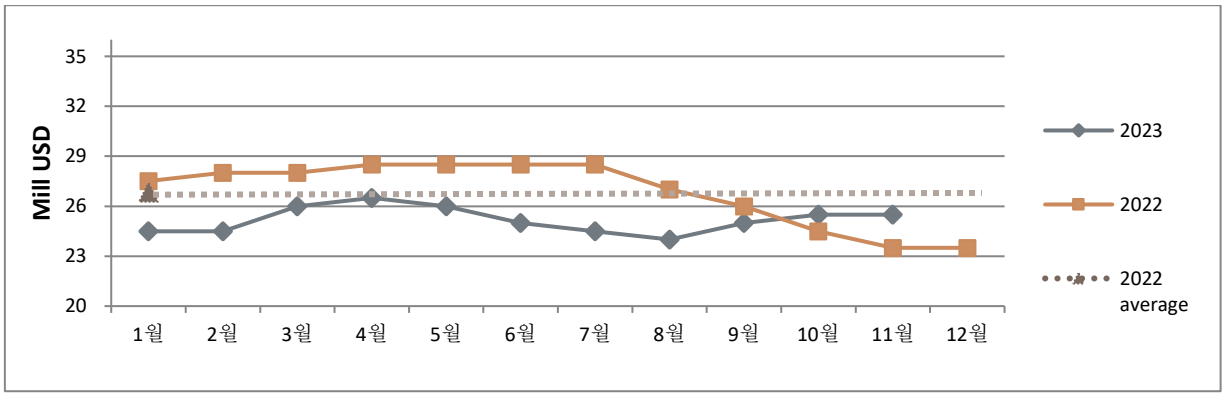
## ◻ Kamsarmax




## ◻ Ultramax & Supramax




## ◻ Handy



# II . BULK CARRIER

## Bulk Carrier Sales Report

| TYPE | VESSEL | DWT | BLT | YARD | M/E | GEAR | PRICE | REMARKS |
|---|---|---|---|---|---|---|---|---|
| BC | AGIS | 182,334 | 2023 | JAPAN | B&W | | 67.5 | Undisclosed buyer, eco-engine |
| BC | TRUE CARTIER | 181,380 | 2014 | JAPAN | B&W | | 37 | Undisclosed buyer, scrubber fitted, eco-engine |
| BC | XIN BIN HAI | 180,086 | 2010 | CHINA | B&W | | 21.5 | Greek buyer |
| BC | HEIDE | 92,500 | 2010 | CHINA | B&W | | 14 | Undisclosed buyer |
| BC | ULTRA PANTHER | 83,610 | 2008 | JAPAN | B&W | | 16.3 | Undisclosed buyer |
| BC | AP LOVRIJENAC | 82,000 | 2023 | CHINA | B&W | | 37 | Undisclosed buyer |
| BC | THOR | 76,838 | 2005 | JAPAN | B&W | | 11.9 | Greek buyer |
| BC | GLORY HARVEST | 64,000 | 2014 | CHINA | B&W | C 4x30t | 21.5 | Greek buyer |
| BC | OCEAN DESTINY | 58,786 | 2008 | JAPAN | B&W | C 4x30t | 13.8 | Greek buyer (Pioneer) |
| BC | ROYAL KNIGHT | 58,721 | 2013 | JAPAN | B&W | C 4x30t | 19.5 | Greek buyer |
| BC | STAR THETA | 52,425 | 2003 | PHILIPPINES( JAP) | B&W | C 4x30t | 8.5 | Undisclosed buyer |
| BC | APRILIA | 36,193 | 2017 | CHINA | B&W | C 4x30t | 20.2 | Greek buyer |
| BC | NODUS | 33,421 | 2010 | CHINA | WART | C 4x25t | 8.8 | Middle Eastern buyer, open hatch |
| BC | AFRICAN IBIS | 32,347 | 2004 | JAPAN | MITSU | C 4x30.5t | 8.6 | Undisclosed buyer |
| BC | LAKE DANY | 28,358 | 2008 | JAPAN | B&W | C 4x30.5t | 9 | Greek buyer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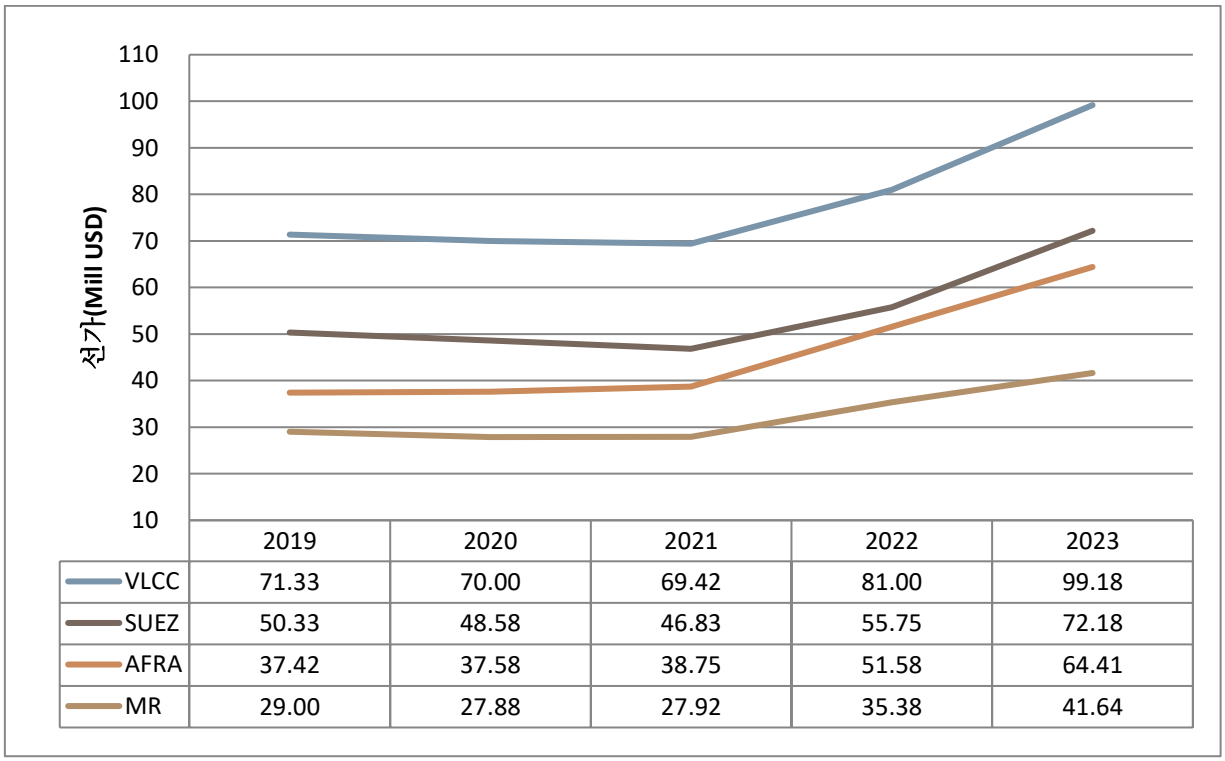
# Ⅲ. TANK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률 : 전년도 대비,%)

| 구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VLCC (310K) | 71.33 | 70.00 | 69.42 | 81.00 | 99.18 |
| | 10.73% | -1.87% | -.83% | 16.69% | 22.45% |
| Suezmax (160K) | 50.33 | 48.58 | 46.83 | 55.75 | 72.18 |
| | 15.60% | -3.48% | -3.60% | 19.04% | 29.47% |
| Aframax (105K) | 37.42 | 37.58 | 38.75 | 51.58 | 64.41 |
| | 17.85% | .45% | 3.10% | 33.12% | 24.86% |
| MR (51K) *Based on 49K till 2018 | 29.00 | 27.88 | 27.92 | 35.38 | 41.64 |
| | 9.43% | -3.88% | .15% | 26.72% | 17.70% |

## ❒ TANKER 연평균 선가

❖선령 5 년 기준, Million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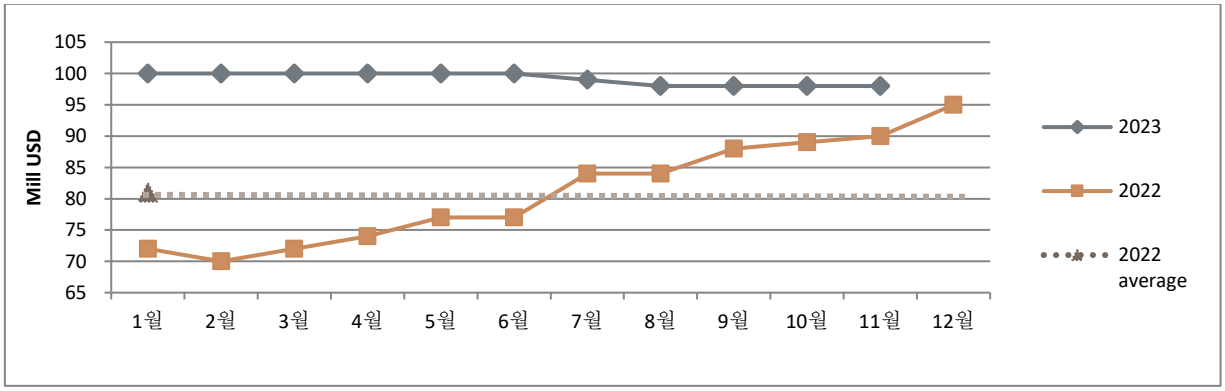


# Ⅲ. TANKER

| 2023 | | 1 월 | 2 월 | 3 월 | 4 월 | 5 월 | 6 월 | 7 월 | 8 월 | 9 월 | 10 월 | 11 월 | 평균 |
|---|---|---|---|---|---|---|---|---|---|---|---|---|---|
| VLCC 310K | 선가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99.00 | 98.00 | 98.00 | 98.00 | 98.00 | 99.18 |
| | 전월대비 | 5.3% | 0.0% | 0.0% | 0.0% | 0.0% | 0.0% | -1.0% | -1.0% | 0.0% | 0.0% | 0.0% | - |
| | 전년대비 | 38.9% | 42.9% | 38.9% | 35.1% | 29.9% | 29.9% | 17.9% | 16.7% | 11.4% | 10.1% | 8.9% | 22.4% |
| SUEZ 160K | 선가 | 68.00 | 68.00 | 68.50 | 68.50 | 74.00 | 73.00 | 72.00 | 73.00 | 73.00 | 78.00 | 78.00 | 72.18 |
| | 전월대비 | 4.6% | 0.0% | 0.7% | 0.0% | 8.0% | -1.4% | -1.4% | 1.4% | 0.0% | 6.8% | 0.0% | - |
| | 전년대비 | 41.7% | 44.7% | 39.8% | 34.3% | 42.3% | 35.2% | 24.1% | 23.7% | 17.7% | 25.8% | 25.8% | 29.5% |
| AFRA 105K | 선가 | 62.50 | 62.50 | 62.50 | 62.50 | 63.50 | 63.50 | 63.50 | 63.50 | 63.50 | 70.50 | 70.50 | 64.41 |
| | 전월대비 | 4.2% | 0.0% | 0.0% | 0.0% | 1.6% | 0.0% | 0.0% | 0.0% | 0.0% | 11.0% | 0.0% | - |
| | 전년대비 | 38.9% | 38.9% | 38.9% | 33.0% | 29.6% | 29.6% | 19.8% | 17.6% | 11.4% | 23.7% | 21.6% | 24.9% |
| MR 51K | 선가 | 41.50 | 41.50 | 41.50 | 42.00 | 42.00 | 41.00 | 40.00 | 40.00 | 41.50 | 43.50 | 43.50 | 41.64 |
| | 전월대비 | 3.8% | 0.0% | 0.0% | 1.2% | 0.0% | -2.4% | -2.4% | 0.0% | 3.8% | 4.8% | 0.0% | - |
| | 전년대비 | 38.3% | 38.3% | 43.1% | 29.2% | 25.4% | 22.4% | 8.1% | 0.0% | 3.8% | 11.5% | 8.8% | 17.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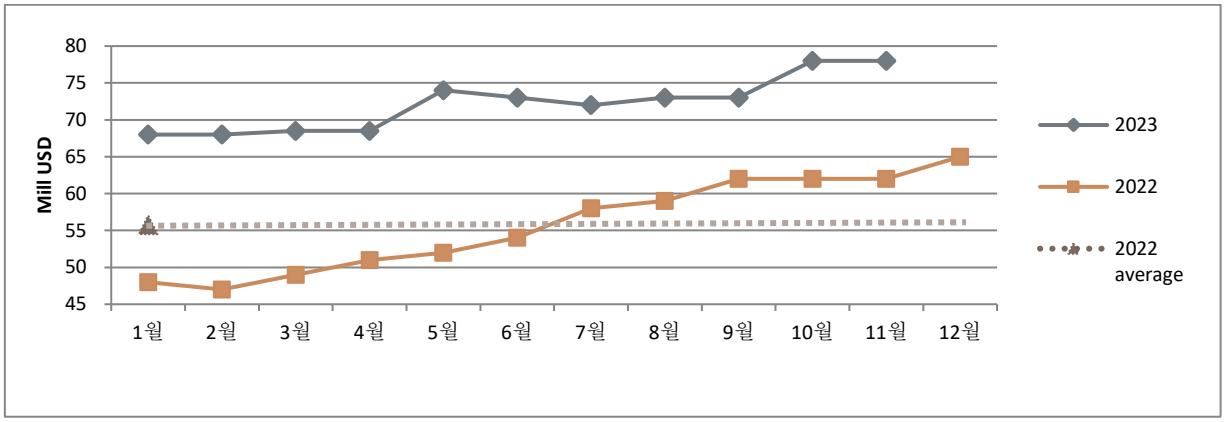
| 2022 | 1 월 | 2 월 | 3 월 | 4 월 | 5 월 | 6 월 | 7 월 | 8 월 | 9 월 | 10 월 | 11 월 | 1year 평균 |
|---|---|---|---|---|---|---|---|---|---|---|---|---|
| VLCC | 72.00 | 70.00 | 72.00 | 74.00 | 77.00 | 77.00 | 84.00 | 84.00 | 88.00 | 89.00 | 90.00 | 81.00 |
| SUEZ | 48.00 | 47.00 | 49.00 | 51.00 | 52.00 | 54.00 | 58.00 | 59.00 | 62.00 | 62.00 | 62.00 | 55.75 |
| AFRA | 45.00 | 45.00 | 45.00 | 47.00 | 49.00 | 49.00 | 53.00 | 54.00 | 57.00 | 57.00 | 58.00 | 51.58 |
| MR | 30.00 | 30.00 | 29.00 | 32.50 | 33.50 | 33.50 | 37.00 | 40.00 | 40.00 | 39.00 | 40.00 | 35.38 |

## ◻ VLCC-310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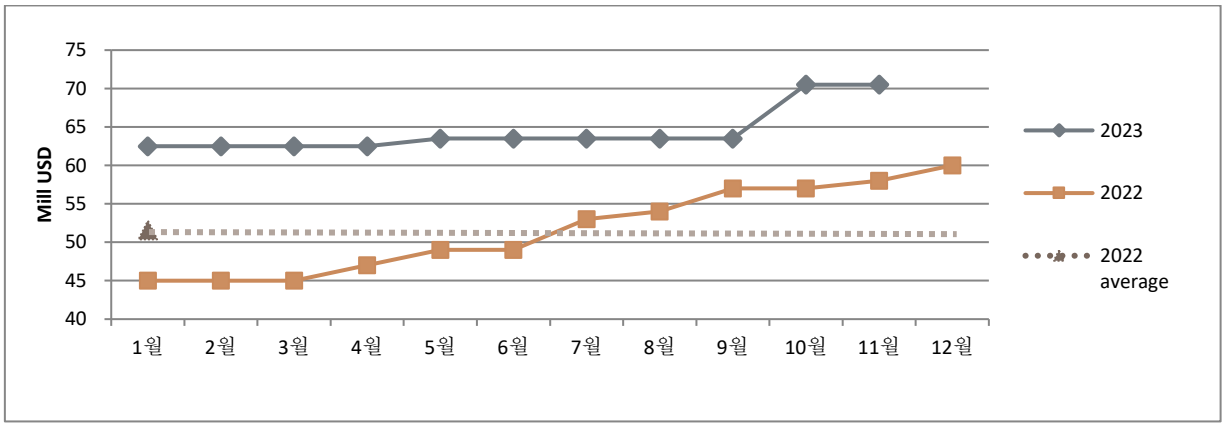


# Ⅲ.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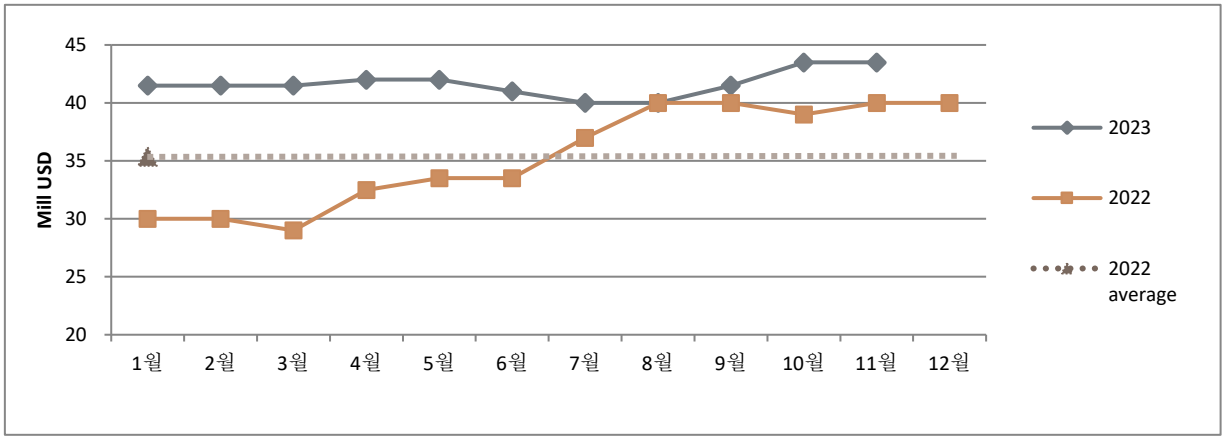
## ☐ SUEZMAX-160K




## ☐ AFRAMAX-105K




## ☐ MR-51K



# III. TANKER

## Tanker Sales Report

| TYPE | VESSEL | DWT | BLT | YARD | M/E | IMO | PRICE | REMARKS |
|---|---|---|---|---|---|---|---|---|
| TANKER | SKS DOKKA | 119,950 | 2010 | KOREA | B&W | | 399-8EB | Danish buyer (TORM A/S), eco-engine, epoxy coated |
| TANKER | SKS DEMINI | 119,456 | 2012 | KOREA | B&W | | | |
| TANKER | SKS DONGGANG | 119,456 | 2011 | KOREA | B&W | | | |
| TANKER | SKS DODA | 119,456 | 2011 | KOREA | B&W | | | |
| TANKER | SKS DEE | 119,456 | 2010 | KOREA | B&W | | | |
| TANKER | SKS DELTA | 119,456 | 2010 | KOREA | B&W | | | |
| TANKER | SKS DOYLES | 119,456 | 2010 | KOREA | B&W | | | |
| TANKER | SKS DOURO | 119,456 | 2010 | KOREA | B&W | | | |
| TANKER | CONCORD EXPRESS | 111,920 | 2003 | KOREA | B&W | | 26 | U.A.E. buyer |
| TANKER | TORM MARINA | 109,672 | 2007 | CHINA | B&W | | 36.5 | Undisclosed buyer, scrubber fitted, epoxy coated |
| TANKER | SILVER | 107,507 | 2010 | JAPAN | B&W | | -- | Azerbaijani buyer, epoxy coated |
| TANKER | TORM ESTRID | 74,999 | 2004 | KOREA | B&W | | 19.5 | Chinese buyer, epoxy coated |
| TANKER | TORM ISMINI | 74,999 | 2004 | KOREA | B&W | | 20.5 | |
| OIL/CHEM | SEAWAYS LORAIN | 51,218 | 2008 | KOREA | B&W | | 24.5 | Undisclosed buyer, epoxy coated |
| OIL/CHEM | FALCON SEXTANT | 50,994 | 2009 | KOREA | B&W | 2 | 25.4 | Undisclosed buyer, epoxy coated |
| OIL/CHEM | MONAX | 20,762 | 2005 | JAPAN | B&W | 2 | 13.5 | Greek buyer (Stainless Tankers), stst |
| OIL/CHEM | MARMOTAS | 19,953 | 2005 | JAPAN | B&W | 2&3 | 13.5 | |
| OIL/CHEM | ENFORD | 16,886 | 2012 | CHINA | B&W | | 14 | Undisclosed buyer, epoxy coated |
| OIL/CHEM | KENRICK | 16,788 | 2012 | CHINA | B&W | | 14 | |

# III. TANKER

## CONTAINER, REEFER, E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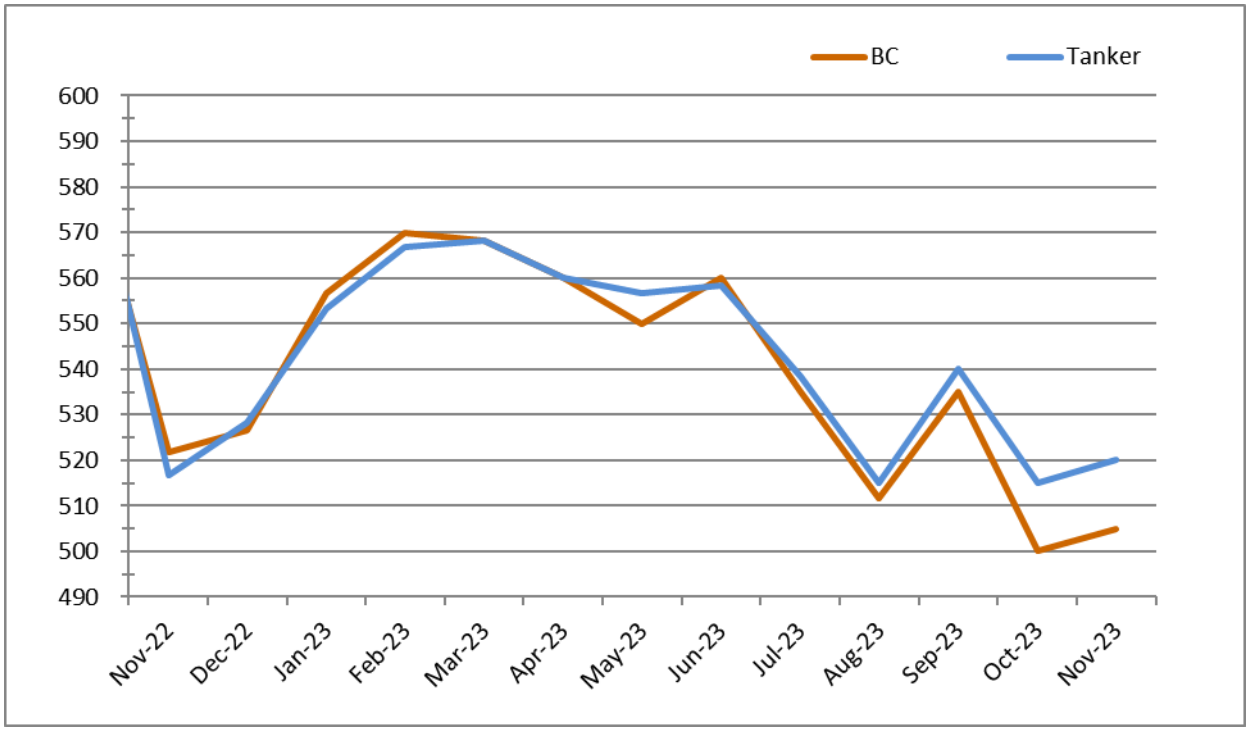
| TYPE | VESSEL | DWT | BLT | YARD | M/E | CAPA | UNIT | PRICE | REMARKS |
|---|---|---|---|---|---|---|---|---|---|
| CONT | AS PETRA | 34,314 | 2004 | KOREA | SULZER | 2556 | TEU | -- | Undisclosed buyer, scrubber fitted |

# Ⅳ. DEMOLITION

## 1) 해체선가

| | 2021 Average | | 2022 Average | | 2023 Average | | 2022.11 | 2023.11 | | |
|---|---|---|---|---|---|---|---|---|---|---|
| | USD/LDT | YoY | USD/LDT | YoY | USD/LDT | YoY | USD/LDT | USD/LDT | MoM | YoY |
| TANKER | 526.81 | 52.9% | 590.28 | 12.0% | 544.70 | -7.7% | 516.67 | 520.00 | -3.7% | 0.6% |
| BC | 529.17 | 53.6% | 588.56 | 70.8% | 541.06 | -8.1% | 521.67 | 505.00 | -5.6% | -3.2% |

❖기준 : 인도 해체선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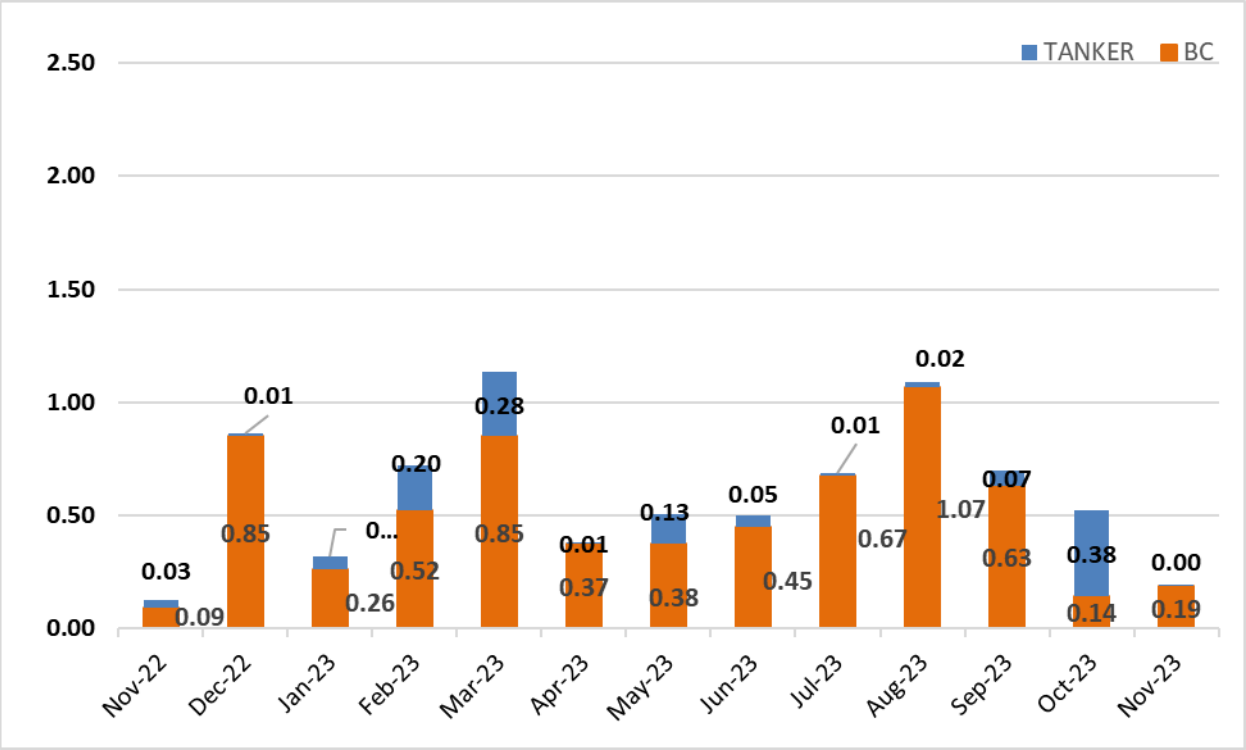
# Ⅳ. DEMOLITION

## 2) 해체선 누적현황

| 해체선 총량 | 2021 | | 2022 | | 2022.11 | | 2023.11 | | | |
|---|---|---|---|---|---|---|---|---|---|---|
| | Million DWT | No. of Vessel | Million DWT | No. of Vessel | Million DWT | No. of Vessel | Million DWT | YoY | No. of Vessel | YoY |
| TANKER | 15.66 | 315 | 6.50 | 134 | 0.03 | 1 | 0.00 | -85.2% | 5 | 400.0% |
| *BC | 6.34 | 123 | 4.48 | 63 | 0.09 | 2 | 0.19 | 104.2% | 14 | 600.0% |

*BC incl. General cargo vessel

## 3) 해체선총량 (Million DWT)



# Ⅳ. DEMOL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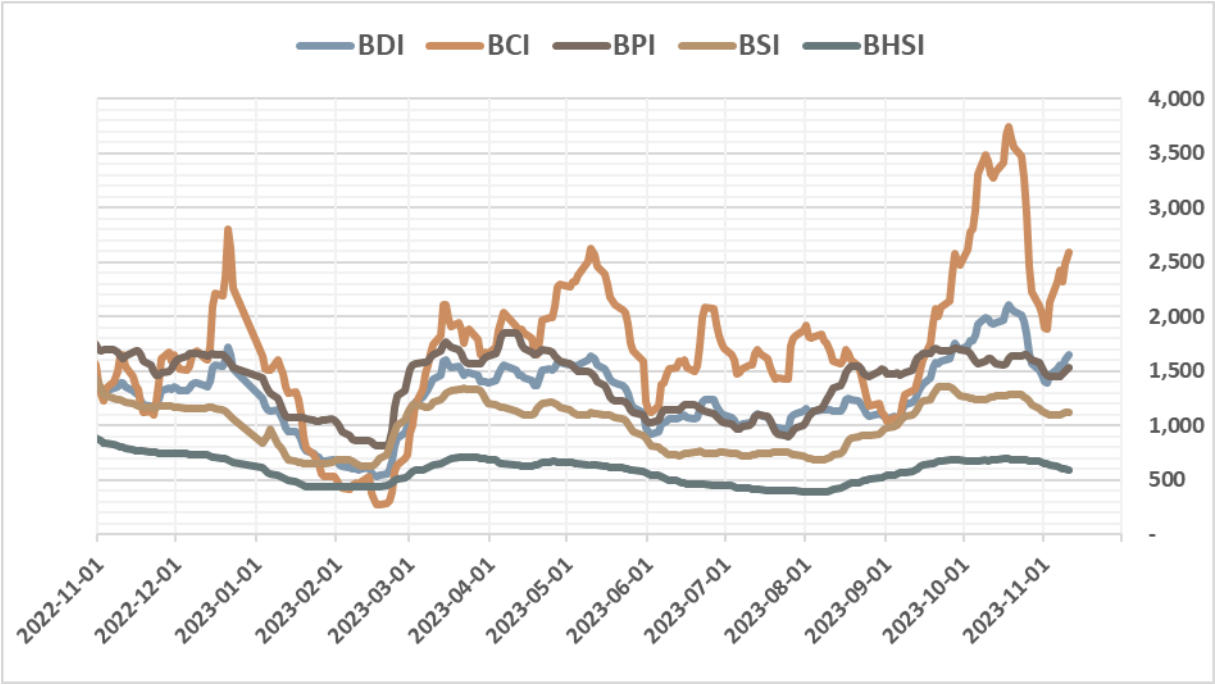
## Demolition Sales Report

| TYPE | VESSEL | DWT | LDT | BLT | YARD | M/E | PRICE (USD/LDT) | REMARKS |
|---|---|---|---|---|---|---|---|---|
| BC | CATHERINE BRIGHT | 77,828 | 10,962 | 1998 | JAPAN | B&W | 535 | INDIAN |
| BC | WU YANG GODDESS | 45,700 | 7,527 | 1995 | JAPAN | B&W | 480 | "AS IS" CHINA, incl. 500T bunkers |
| GC | BONTRUP MALDIVES | 42,913 | 10,965 | 1984 | KOREA | B&W | 547 | INDIAN, incl. 350T bunkers, HKC recycling |
| TANKER | GAS DOLLART | 5,688 | 2,491 | 1990 | NETHERLAND | MAK | 700 | INDIAN |
| CONT | MSC CHIARA | 41,815 | 13,933 | 1987 | FINLAND | SULZ | 537 | INDIAN, incl. 350T bunkers, HKC recycling |

# Ⅴ. KEY INDICATORS

## 1) Baltic Index

| | 2023-11-10 | 2023-11-03 | CHANGE | 1 Year High | 1 Year Low |
|---|---|---|---|---|---|
| BDI | 1,643 | 1,462 | ▲181.00 | 2,105 | 530 |
| BCI | 2,589 | 2,133 | ▲456.00 | 3,749 | 271 |
| BPI | 1,530 | 1,448 | ▲82.00 | 2,235 | 809 |
| BSI | 1,125 | 1,101 | ▲24.00 | 1,714 | 625 |
| BHSI | 594 | 634 | ▼40.00 | 1,034 | 389 |



# Ⅴ. KEY INDICATORS

## 2) Bunker Price

| | Singapore | | Rotterdam | | Houston | |
|---|---|---|---|---|---|---|
| | (USD/Ton) | 전주대비증감 | (USD/Ton) | 전주대비증감 | (USD/Ton) | 전주대비증감 |
| VLSFO | 679.00 | ▼15.00 | 571.00 | ▼33.00 | 574.00 | ▼32.00 |
| MGO | 781.00 | ▼85.00 | 782.00 | ▼94.50 | 845.50 | ▼67.00 |
| LSMGO | 778.50 | ▼87.50 | 780.50 | ▼96.00 | - | - |
| IFO380 | 460.00 | ▼21.50 | 471.00 | ▼51.00 | 466.00 | ▼30.50 |

❖기준일 : 11 월 10 일 기준

## 3) Exchange Rate

| 구분 | 2023-11-10 | 2023-11-03 | CHANGE |
|---|---|---|---|
| 미국 USD | 1309.00 | 1343.20 | ▼34.20 |
| 영국 GBP | 1599.60 | 1638.17 | ▼38.57 |
| 유로 EUR | 1396.31 | 1426.08 | ▼29.77 |
| 중국 CNY | 179.36 | 183.20 | ▼3.84 |
| 일본 JPY (100) | 864.94 | 892.67 | ▼27.73 |

❖최초고시, 매매기준율기준

# Ⅵ. ISSUE & TREND

## [시사 상식] 디토소비

◆ 디토소비란 특정 인물이나 콘텐츠, 유통 채널 등을 추종해 제품을 구매하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의미한다. '마찬가지', '나도'라는 뜻을 가진 디토(Ditto)에서 착안한 용어다.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의 <트렌드 코리아 2024>에서 새롭게 소개됐다. 본인이 지향하는 가치에 방점을 둬 가격과 만족도 등을 꼼꼼하게 따져 소비하는 '가치 소비'에 반대격인 단어다.

최근 소비 선택지가 다양해지면서 선택의 어려움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자 복잡한 과정과 시간을 건너뛰어 최적의 소비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부상한 인플루언서와 영화, 드라마, 예능 등 콘텐츠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를 따르는 팬들의 소비 또한 디토소비의 일종이다.

유통 업체도 디토소비 문화 확산과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AI 로 소비자의 구매 패턴, 선호도 등을 분석하는 초개인화 추천 서비스를 도입해 집객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네이버는 AI 를 통해 소비자의 패턴을 분석해 상품을 추천하는 Ai 템즈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 롯데쇼핑은 업스테이지와 협업을 통해 개인화된 AI 상품 추천 서비스를 만들었고, 이커머스인 롯데온의 구매 전환율이 30%가량 개선됐다고 밝혔다.
[출처 : 연합인포맥스]

# Ⅶ. CONTACT DETAILS

## STL GLOBAL CO., LTD.

| | | |
|---|---|---|
| | **Marino Hwang(황 재 웅)**<br>President<br>T. 070-7771-6400 | |
| **Fleet & Chartering Operation**<br>biz@stlkorea.com | **Sancho Kim(김 현 진)**<br>Managing Director<br>T. 070-7771-6404 | **H.S. Lee(이 현 성)**<br>Director<br>T. 070-7771-6412 |
| | **Mike Hong(홍 창 목)**<br>Director<br>T. 070-7771-6417 | **Henry S.H. Oh(오 수 현)**<br>Deputy General Manager<br>T. 070-7771-6402 |
| | **Anna Lee(이 혜 란)**<br>Manager<br>T. 070-7771-6403 | **Joovi Park(박 주 비)**<br>Assistant Manager<br>T. 070-7771-6419 |
| **Agency Operation**<br>operation@stlkorea.com | **Jennifer Park(박 영 단)**<br>Manager<br>T. 070-7771-6407 | **Hayden Son(손 호 영)**<br>Assistant Manager<br>T. 070-7771-6401 |
| **Ferroalloy Logistics & Warehouse Management**<br>ops@stlkorea.com | **Jena Ahn(안 지 영)**<br>Deputy General Manager<br>T. 070-7771-6405 | **Joanne Jin(진 정 식)**<br>Manager<br>T. 070-7771-6406 |

## STL SHIPPING CO., LTD.

| | | |
|---|---|---|
| **Sale and Purchase Broking**<br>snp@stlkorea.com | **Neal S.I. Kwon(권 순 일)**<br>President<br>T. 070-7771-6410 | |
| | **Jack Kim(김 종 수)**<br>Director<br>T. 070-7771-6411 | **Nova Cha(차 혜 정)**<br>Team member<br>T. 070-7771-6409 |

T. 02-776-0840(Rep.) | E. seoul@stlkorea.com | W. www.stlkorea.com | (04146) 101-1301/1401, Lotte Castle President, 109 Mapo-daero, Mapo-gu, Seoul, Korea

| STL G-TOUR | | Jeonnam Yacht Academy | |
|---|---|---|---|
| **기업/일반 단체 항공예약**<br>실장 **김 영 하** | T. 1661-8388<br>T. 070-4800-0151<br>W. www.stlgtour.com<br>E. tour@stlgtour.com | **보트/요트 면허취득**<br>실장 **이 진 행**<br>대리 **이 정 택** | T. 061-247-0331<br>T. 010-2777-4027<br>W. www.stlyacht.com<br>E. academy@stlyacht.com |